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왕배녕 · 최소담 · 황향희¹

강원대학교 박사수료 · 강원대학교 석사과정 · ¹강원대학교 교수

An Comparative study on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China

Wang Pei-Ning · Choi So-Dam · Hwang Hyang-Hee¹

Department of Smart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¹Department of Spor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pplied Social Comparison Theory(SCT)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higher levels of resource-based leisure deprivation, whereas their Chinese counterparts exhibit higher levels of cognitive and emotional leisure deprivation. This suggests that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is shaped not only by the absolute availability of leisure resources but also by the process of social compariso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lso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Korean persons with disabilities, cognitive leisure depriv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whereas Chinese persons exhibited higher life satisfaction despite experiencing egoistical leisure deprivat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 on leisur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scoring the need for leisure policies that extend beyond physical support to include psychological well-being.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diverse cultural contexts and explore its impact on behavioral changes, such a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s.

Key words :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China, social comparison theory,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life satisfaction

주요어 : 한·중 장애인, 사회 비교 이론, 상대적 여가박탈감, 삶의 만족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Hyang-Hee

E-mail: phyhee@kangwon.ac.kr

Received: Jan, 31, 2025 Revised: Mar, 7, 2025 Accepted: Mar, 17, 20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스포츠여가활동 참여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신체적 건강, 사회적 통합, 심리적 회복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왕배녕, 황향희, 2024).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가자원의 구조적 배분과 접근성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활동을 누리지 못하면서 상대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즉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여가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할 때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적 여가박탈(Relative Leisure Deprivation, RLD)은 ‘개인이 전반적 여가 자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황향희, 김보람, 2020)’를 의미하며, 여기서 여가자원은 여가 전반의 상황으로 시간, 활동, 경험, 기회, 자원, 물질적·사회적·사회문화적 기준, 정보, 공간, 환경 등을 포함한다(황향희, 이유진, 김보람, 2021).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황향희, 이유진, 김보람(2021)은 여가복지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여가활동 참여기회와 건강형평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구로 상대적 여가박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이기적(Egoistical) 여가박탈은 개인이 여가 자원에 대해 보상의 기대가 낮다고 느끼는 이기심, 자원적(Resource-Based) 여가박탈은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가자원, 인지적(Cognitive) 여가박탈은 개인이 여가자원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 마지막으로 감정적(Emotional) 여가박탈은 개인이 여가자원에 대

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다 포용적인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들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 여가박탈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장애인 스포츠와 여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책 발전의 방향이 상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의 실제 여가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나병균, 2013; 景天魁, 2011; Whyte, 2010).

한국의 경우 장애인 여가 지원 정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여가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농촌과 도시 장애인 간의 격차로 인해 자원적 여가박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요인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여가박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SCT)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여가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 비교 이론(Festinger, 1954)은 개인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을 평가한다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이 누

리는 여가 기회를 평가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장애인은 자신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과 자원 접근성을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Callan et al., 2011).

장애인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회 비교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중 장애인의 사회 비교 방식과 그에 따른 상대적 여가박탈감 차이를 분석하면 사회·문화적 요인이 상대적 여가박탈감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힐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 장애인의 여가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장애인 여가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20일 까지 약 1개월간 비확률적 표본추출법 중 편의 표본추출법을 통해 양국 지자체 내 장애인 기관,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현장에서 자세히 소개한 후 종이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작성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수집된 설문지는 한국과 중국 각각 120부씩 총 240부이다. 양국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n=120명)			중국(n=120명)	
사례수 (명)	빈도 (%)	구분	사례수 (명)	빈도 (%)
84	70	남자	87	72.5
36	30	여자	33	27.5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국적, 성별 총 2문항이다. 상대적 여가박탈감은 황향희, 이유진, 김보람(202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이기적 여가박탈감 3문항, 자원적 여가박탈감 3문항, 인지적 여가박탈감 6문항, 감정적 여가박탈감 6문항 총 18문항이고, 삶의 만족도는 백세현(2019), 장덕진(2021)이 사용한 5문항의 단일요인이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점수가 크면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설문지구성

변수 명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적, 성별	2
	개인이기적	3
상대적 여가박탈감	자원적	3
	인지적	6
	감정적	6
삶의 만족도		5
계		2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비표준화 적재값	표준 오차	t-값	표준화 적재값	측정변수 오차	CR	AVE	Cronbach's α
개인 이기적	Q1	1.000	-	-	.638	.541	.554	.787	.800
	Q2	1.225	.129	9.505	.762	.402			
	Q3	1.258	.129	9.720	.822	.282			
자 원 적	Q4	1.000	-	-	.919	.162	.785	.916	.909
	Q5	1.045	.044	23.699	.932	.147			
	Q6	.865	.051	17.055	.801	.369			
상 대 적 여 가 박 탈 감	Q7	1.000	-	-	.688	.568	.609	.903	.917
	Q8	.937	.077	12.211	.725	.407			
	Q9	1.109	.094	11.849	.822	.303			
	Q10	1.045	.095	11.049	.763	.402			
	Q11	1.108	.093	11.952	.828	.288			
	Q12	1.108	.091	12.136	.842	.258			
	Q13	1.000	-	-	.626	.490			
감 정 적	Q14	1.196	.101	11.877	.729	.400	.652	.917	.910
	Q15	1.301	.110	11.811	.816	.269			
	Q16	1.390	.125	11.134	.874	.189			
	Q17	1.418	.126	11.238	.880	.186			
	Q18	1.431	.127	11.246	.886	.177			
삶의 만족도	Q19	1.000	-	-	.798	.317	.592	.879	.877
	Q20	.992	.080	12.414	.769	.379			
	Q21	.989	.077	12.815	.788	.331			
	Q22	1.025	.079	12.967	.796	.337			
	Q23	.922	.084	10.96	.691	.518			

$\chi^2 = 514.846$, $df=205$, $\chi^2/df = 2.511$, $RMR=.055$, $CFI=.925$, $TLI=.908$, $IFI=.926$, $RMSEA=.080$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설문지 구성은 지도교수 1인, 동일 전공 박사 2인이 문항 내용의 적합성과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했고, 특히 양국 언어 수준이 우수한 중국 박사과정 유학생 5명에게 설문지 내용을 검토받은 후, 예비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사용하였다.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변수의 내재적 구조가 타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ormed χ^2 (NC)는 2.511, RMSEA=.080, RMR=.055, CFI=.925, TLI=.908, IFI=.926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김계수, 2010). 변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0~.917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또한 집중신뢰도(CR)와 수렴타당도(AVE)를 확인한 결과 CR은 .50이상, AVE는 .70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적절함'이 확보되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후,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양국 간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표 4>는 한국과 중국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원적($t=5.942, p<.001$) 여가박탈감은 한국($M=2.99$)이 중국($M=2.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t=-7.661, p<.05$) 여가박탈감은 중국($M=3.54$)이 한국($M=2.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감정적($t=-8.106, p<.001$)은 중국($M=3.37$)이 한국($M=2.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이기적 여가박탈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t=2.303$)는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장애인($M=2.88$)이 중국장애인($M=2.65$)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양국 간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SD	t
상대적 여가박탈감	개인이기적	한국	120	2.98±.79	-4.724
		중국	120	3.47±.81	
	자원적	한국	120	2.99±1.02	5.942***
		중국	120	2.32±.72	
인지적	한국	120	2.76±.83	-7.661*	
	중국	120	3.54±.73		
감정적	한국	120	2.61±.84	-8.106***	
	중국	120	3.37±.58		
삶의 만족도	한국	120	2.88±.85	2.303**	
	중국	120	2.65±.70		

* $p<.05$, ** $p<.01$, *** $p<.001$

2.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표 5. 상관관계 분석(한국 장애인)

	개인이기적	자원적	인지적	감정적	삶의 만족도
개인이기적	1				
자원적	.581**	1			
인지적	.521**	.663**	1		
감정적	.457**	.479**	.792**	1	
삶의 만족도	-.215*	-.150	-.385**	-.351**	1

한국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 상관관계 분석(중국 장애인)

	개인이기적	자원적	인지적	감정적	삶의 만족도
개인이기적	1				
자원적	.615**	1			
인지적	.571**	.758**	1		
감정적	.576**	.684**	.763**	1	
삶의 만족도	.378**	.337**	.402**	.338**	1

표 7.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공차한계	VIF
한국	삶의 만족도	(상수)	4.010	.307		13.048		
		개인 이기적	-.092	.116	-.085	-.791	.619	1.616
		자원적	.181	.103	.217	1.762	.474	2.109
		인지적	-.422	.167	-.414	-2.528*	.267	3.745
		감정적	-.089	.142	-.088	-.628	.362	2.760
R=.420, R ² =.176, F=6.150***, Durbin-Watson=2.088								
중국	삶의 만족도	(상수)	1.716	.219		7.839		
		개인 이기적	.181	.089	.225	2.036*	.572	1.747
		자원적	-.019	.125	-.021	-.150	.365	2.739
		인지적	.253	.133	.286	1.904	.311	3.212
		감정적	.004	.132	.005	.033	.377	2.655
R=.441, R ² =.195, F=6.944***, Durbin-Watson=1.757								

*p<.05, **p<.01, ***p<.001

〈표 5〉와 같이 상관계수는 -.385~.792 사이로 변인 간에 정(+)적,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 값이 0.9이하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중국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337~.763 사이에서 변인 간에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0.9이하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중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한국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7.6%(R²=.176)로 나타났고, F값은 6.150, 유의확률은 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여가박탈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인지적 여가박탈감(β

=-.414, p<.05)에서만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개인이기적, 자원적, 감정적 여가박탈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9.5%(R²=.195)로 나타났고, F값은 6.944, 유의확률은 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여가박탈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이기적 여가박탈감(β =.225, p<.05)에서만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자원적, 인지적, 감정적 여가박탈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장애인

간의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원적 여가박탈감은 한국장애인이 중국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적 및 감정적 여가박탈감은 중국장애인이 한국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한국장애인이 중국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자원에 기대 수준과 현실 간의 격차를 인지하면서 자원적 여가박탈감을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가시설의 접근성 문제,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 지역 간 자원 배분의 불균형 등이 장애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방지윤, 2016; Runciman, 1966, 1993). 이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이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이 충분한 여가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장애인의 경우 인지적 및 감정적 여가박탈감이 한국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여가정책이 미흡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 여가활동을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희, 김경란, 이윤희, 2015). 특히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장애인 여가 접근성의 격차는 상당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스스로가 여가 기회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시즈취, 윤석민, 2024; 이종두, 백미연, 2012; 자이 슈아이, 최규전, 신희홍, 여형일, 오연풍, 2015; 자이 슈아이 슈아이, 오연풍, 2016). 또한 중국장애인의 감정적 여가박탈감이 높게 나타난 점은 여가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박탈감을 넘어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는 한국장애인이 중국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2023)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한국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여가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장애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 기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에서 기인할 수 있다(한금휘, 2021; 刘渊, 2019; 杨立雄, 2022).

刘渊(2019)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장애인은 교통불편, 무장애 시설 부족, 불친절 및 사회적 배척을 받고 있고, 杨立雄(2022)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체육 시설과 환경의 부적합, 주변의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여가 참여의 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국의 장애인 여가정책 및 사회·문화적 차이가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장애인의 경우 인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국장애인의 경우 개인이 인지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한국장애인이 여가활동에서 불공정성을 인지할 때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하는 반면, 중국장애인은 여가의 결핍을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Hofste, 1984; Iwasaki, Y., 2003; Kuykendall, L., 2015; Triandis, 2018; 中国政府网, 2021).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비교 이론(SCT)

의 관점에서 비교의 대상과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장애인은 비장애인 또는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높은 장애인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며, 이러한 인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장애인은 주변의 유사한 장애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여가박탈감이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사회 비교 방식 차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비교 이론(SCT)이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여가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여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은 장애인을 위한 여가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로 한국의 바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이 있다.

둘째,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장애인의 인지적 여가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개별 맞춤형 여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방

식과 기대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로 한국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장애인 여행 체험 확대 정책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 및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활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 비교 이론(SCT)을 적용하여 한국과 중국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사회적 비교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자원적 여가박탈감은 한국장애인이 중국장애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적 및 감정적 여가박탈감은 중국장애인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여가정책과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의 경우, 여가 지원 정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자원의 기대 수준과 현실 간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장애인은 여가 참여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및 감정적 여가박탈감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여가 경험이 단순한 정책적 지원 여부를 넘어, 사회적 비교와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장애인의 경우, 인지적 여가박탈감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국장애인은 개인이기적 여가박탈감을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장애인이 여가활동에서 불공정성을 인지할 때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하는 반면, 중국장애인은 여가의 결핍을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 비교 이론(SCT) 틀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여가 경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국가 및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절대적 자원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비교 과정이 상대적 여가박탈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대적 여가박탈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을 보다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장애인의 상대적 여가박탈감이 실제 행동 변화라는 여가활동 참여 의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여가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

래 출판사.

김정희, 김경란, 이윤희(2015). 한·중·일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장애인복지연구. 6(1), 115-142.

나병균(2013).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교육, 24, 101-125.

방지윤(2016). 장애인 접근 가능성 재고를 위한 미술관 정책 비교-국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백세현(2019).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4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시즈히, 윤석민(2024). CiteSpace 시각화 분석을 통한 중국 장애인체육 연구동향 탐색: 2004~2023년을 중심으로. 운동재활·복지, 5(2), 11-23.

왕배녕, 황향희(2024). 중국장애인의 여가계약 탐색: Q 방법론적 접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8(3), 83-96.

이종두, 백미연(2012).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국제관계연구, 17(1), 335-361.

자이 슈아이 슈아이, 오연풍(2016). 델파이 기법과 FAHP 분석 기법을 활용한 중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193-210.

자이 슈아이, 최규전, 신희홍, 여형일, 오연풍(2015). 중국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377-378.

장덕진(2021). 자기결정성이론을 적용한 신체활동 참여 장애인의 기본심리욕구와 그릿(GRIT) 및 삶의 질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진호남(2023).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 학교 대학원, 서울.
- 한금휘(2021). 중국 장애인 관광참여 정책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전북.
- 황향희, 김보람(2020).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3), 113-126.
- 황향희, 이유진, 김보람(2021). 상대적 여가박탈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60(3), 103-114.
- Callan, M. J., Shead, N. W., & Olson, J. M. (2011).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delay discounting, and gamb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5), 95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Iwasaki, Y. (2003). Roles of leisure in coping with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A repeated-assessment field study. *Anxiety, Stress & Coping*, 16(1), 31-57.
- Kuykendall, L., Tay, L., & Ng, V. (2015). Leisure engag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2), 364.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o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nciman, W. G. (1993).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Hampshire, Gregg Revivals.
- Triandis, H. C. (201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Routledge.
- Whyte, M. (2010). *Myth of the social volcano: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distributive injustice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景天魁(2011). 社情人情与福利模式——对中国大陆社会福利模式探索历程的反思. *探索与争鸣*, 6(2).
- 杨立雄(2022). 残疾人体育参与的社会性障碍 基于社会-文化视角. *上海体育大学学报*, 46(3), 1-11.
- 中国政府网 (2021). 国务院关于印发“十四五”残疾人保障和发展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1-07/21/content_5626391.htm.
- 刘渊(2019). 残疾人休闲需求, 参与及障碍研究 (Master's thesis, 武汉科技大学).